

전남광주특별시민의 행복 만드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마찬호 광주매일신문 회장 취임사

1991년 '희망의 신문'을 기치로 첫 걸음을 땀 광주·전남 대표 언론 광주매일신문은 그동안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취재 보도 영역을 확장하며 뉴미디어 시대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역민과 애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20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 여러분, 창사 35주년 뜻 깊은 날에 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엄중한 시기에 부담감 또한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국가적 과제인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전남광주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앞두고 지역 언론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전남광주는 대도약의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인 예산 규모 5조 원, 지역내 총생산(GRDP) 160조원에 육박하는 초광역 메가 시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인 수도권 1억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1호 통합 지방정부로 국민적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보란 듯이 성공해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 지역의 활로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직접시 승격으로 광주가 분리된 후 40년 만에 다시 합쳐야 하



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전남광주의 모든 주민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지속된 경제난에 소비부진, 차츰 물가등으로 서민의 삶이 힘에 부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때입니다.

광주매일신문이 호기를 맞은 지역 발전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전라도 1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온 공동체의 지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천년의 중흥을 준비하는 원년이 될 것이기에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주어진 사명을 다해낼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시·구·군 기초단체장, 통합교육감, 특별시 광역 및 기초의원 모두 선출했습니다. 저마다 새 시대의 일꾼임을 자인하는 바, 초심을 잃지 않고 헌신할 수 있도록 비판과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자립을 강조해왔습니다. 건강한 매체로 기능하기 위해선 자생력,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편집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득권의 해묵은 논리를 깨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

에서처럼 후보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유권자가 듣고 싶고 알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는 등 현장 위주의 콘텐츠 강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입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해낼 일 아닙니다. 지금부터 나아가 방향을 잡고 고민을 되풀이하면 가능하기에 묵묵히 정진하고자 합니다.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열악한 산업구조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 지방분권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화두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첨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광주매일신문은 역량을 다해왔습니다. 다양한 공론의 장을 제공해 관련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왔습니다. 이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역점 현안이기도 한 만큼 선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언론으로 주민의 목소리, 민의를 대변하는 소명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자 지방 주도의 성장을 위한 전남광주특별시의 성공을 위해 주춧돌을 놓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적극적으로 의제를 설정하며 발전 방향을 찾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에 정진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있습니다. 저는 호남 대표 정론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한시라도 중차대한 본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더 귀담아 들겠습니다. 진심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고(故) 마형렬 회장의 철학대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소외약자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될 것입니다. 지역민의 고단한 삶에 희망의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혁신적 언론의 길은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뉴스 전달을 위해 늘 깨어 있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조리와 부정, 차별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넘쳐나는 허위조작 정보와 선동에 맞서 용기를 내 올곧이 진실을 캐내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폭넓은 통찰력으로 품격 높은 탐사기획 보도에 집중하겠습니다.

갈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사를 읽고 보며 소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인터넷에 이어 생성형 AI 등 전혀 다른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창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년 수많은 난관을 헤쳐왔던 것처럼 파과를 열 것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잡힌 시각으로 담아 언론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할 것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춰 시민 행복을 위해 100년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지방의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계속 응원해 주시면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320만 전남광주특별시민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합특별시 올바른 이정표 제시해 주길”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매일신문 창사 3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광주매일신문은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지역언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언론 진흥을 위한 소명을 다해왔습니다. 광주 성장의 동반자로서 긴 시간 함께해줘 무척 고맙고 든든한 마음입니다.

광주 공동체의 발전에 힘써주시는 마찬가지로 회장님과 이경수 대표이사님, 광주매일신문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로 취임하시는 마찬가지로 회장님께서 그동안 광주매일신문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며 쌓아온 깊은 이해와 지역사회에서 다져온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매일신문을 더 큰 미래로 이끌어 주시길 믿습니다.

이윽고 오늘의 광주매일신문이 있기까지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광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던 고(故) 마형



렬 회장님의 뜻과 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역의 대표 언론으로서 광주매일신문은 건강한 담론의 장을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상생과 협력의 길을 열어주기에 충분한 속의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 수 있었습니

다. 광주와 전남은 곧 하나가 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과 탄탄한 미래를 위해 광주매일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조언은 통합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려왔던 320만 시민의 마음과 역량을 모으는 구심점이 돼 주기를 바랍니다.

“전남광주 상생의 길 밝힐 등불 돼달라”

●김영록 전남지사

시대를 선도해 온 혁신 미디어, 광주매일신문의 창사 35주년을 온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정론직필로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지역민의 신문이 되자'라는 사시 아래,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지역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호남 지역 신문사 최초로 종이신문과 TV를 융복합한 디지털 미디어를 선도하는 등 언론 환경의 변화 앞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광주매일신문은 올해를 포함해 총 14회에 걸쳐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는 결실을 거두며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언론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뜻 깊은 여정을 일궈 오신 마찬가지로 회장님과 이경수 사



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이면 대한민국 제1호 광역 통합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역사적인 출범을 합니다. 새롭게 열릴 통합특별시 시대, 하나로 뭉친 320만 시·도민의 지력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돼 AI·반도체·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들을 한자게 발전시키고,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는 세상을 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시대를 맞아 광주매일신문이 참신한 제언과 통찰력 있는 보도를 통해 늘 함께하며, 상생의 길을 밝히는 시대의 등불이 돼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사 35주년을 축하드리며, 광주매일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시민 곁에서 지역사회 밝은 길 열어주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광주매일신문 창간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지난 35년 동안 광주와 전남의 현장을 지켜 지역민의 삶과 목소리를 성실히 기록해 왔습니다. 정론직필의 사명으로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고, 광주·전남의 경제발전과 문화창달을 위해 힘써 오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역 언론은 지역민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공동체의 오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일상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의 과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며,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힘입니다. 광주매일신문이 걸어온 35년은 바로 그 역할을 묵묵히 실천해 온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광주교육은 모든 아이가 자신의 가능성을 키우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세우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한 명 한 명의 다양한 실력을 키우고, 따뜻한 인성과 세계를 향한 시야를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교육의 가치를 깊이 있게 전하는 언론의 역할이 함께할 때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매일신문이 지역민의 곁에서 신뢰받는 보도로 지역사회의 밝은 길을 열고, 광주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광주매일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독자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특별시교육의 힘찬 발걸음에 용기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광주매일신문 창사 35주년을 전남광주 교육공동체 모든 구성원과 더불어 축하합니다.

광주매일신문은 그동안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친근한 이웃으로,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지역의 대표적 정론지로 자리 잡으며, 지역발전을 이끌고 건강한 공동체 건설에 앞장섰습니다. 무엇보다 전남광주교육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교육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주셨고, 전국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광주교육에는 더 큰 발전을 위한 용기를 주셨습니다.

전남광주교육은 광주매일신문을 비롯한 지역 언론의 협력과 응원 덕분에 희망의 발걸음을 단단하게 이어가고 있습



니다. 전남교육은 이제 더 큰 도약의 전환점에서 있습니다. 1986년 전남과 광주 교육으로 분리된 이후 40년 만에 다시 '통합'의 날개를 달고, 더 큰 희망을 피워낼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은 전남광주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 된 전남광주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K-교육의 대표주자로 나아가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광주매일신문도 전남광주교육의 이 담대한 여정에 함께 해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광주매일신문 창간 35주년을 축하드리며, 더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글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8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업인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주인감과 함께가는 KRC,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

KFC 한국농어촌공사